

세계 5대 위스키 강국



정성운의

K-위스키 발전을 위한 제안

위스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애호가를 보유한 주류 중 하나로, 그 품질과 명성은 각 나라의 전통과 역사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특히 세계 5대 위스키 강국으로 불리는 스코틀랜드·아일랜드·미국·캐나다·일본은 각기 다른 방식과 철학을 통해 독특한 위스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위스키의 본고장으로 '스카치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이곳 위스키는 몰트와 그레인으로 구분되며 특히 몰트 위스키는 전통적인 제조 방법과 오랜 숙성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풍미를 자랑한다. 스코틀랜드의 다섯 주요 생산 지역인 하이랜드·스페이스사이드·아일랜드·로우랜드·캠벨타운은 각각 독특한 풍미를 지닌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경험하는 재미가 있다.

아일랜드는 스코틀랜드와 함께 위스키의 역사를 공유하는 나라로 '아이리시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 위스키는 대체로 스코틀랜드 위스키보다 부드럽고 가벼운 맛이 특징이다.

미국 위스키는 '버번'과 '라이 위스키'로 대표된다. 켄터키와 테네시 주에서 주로 생산되며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고 새 오크(New Oak) 배럴에서 숙성되어 달콤하고 풍부한 맛을 낸다. 테네시 위스키는 버번과 비슷하지만 증류액을 단풍나무 숲으로 여과하는 특유의 과정을 거쳐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지닌다.

캐나다 위스키는 '라이 위스키'로 잘 알려져 있다. 부드럽고 가벼운 풍미가 특징이며 캐나다 위스키는 다양한 곡물을 혼합해 만들기 때문에 위스키마다 그 맛과 향이 매우 다양하다.

일본은 비교적 늦게 위스키 시장에 진입했지만 독창적인 스타일과 높은 품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일본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더 섬세하고 정교한 맛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필자가 방문했던 M 증류소는 스페이스사이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카치 위스키 중 하나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곳은 위스키 애호가를 사이에서 '위스키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품질과 명성이 자자하다.

S 증류소는 캠벨타운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증류소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몇 안 되는 증류소 중 하나다. 보리를 맥아로 만드는 과정부터 숙성이 끝난 위스키를 병입하는 모든 공정을 직접 하는 유일한 재래식 증류소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 위스키는 구수한 피트, 스모키 향과 함께 바다의 짭짤한 느낌을 지니고 있어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필자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근무한 클라이드사이드 증류소는 위스키 지역구분상 로우랜드에 속하는 글래스고에 위치하고 있다. 짧은 발효시간과 컷포인트(숙성에 사용할 본류 증류를 중단하는 시점)로 깔끔하고 정제된 풍미의 위스키 원액을 생산한다.

이 곳으로 들어오는 원료는 몰트(맥아)와 효모, 호수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세 가지로 약 4일만에 70도 이상의 맑은 증류 원액이 되어 오크통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숙성중인 원액은 꼬박 3년하고도 1일을 오크통 안에서 기다려야 스카치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출시된다.

/골든블루 마케팅팀

'회복탄력성'이 부족한 韓증시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최근 한국 증시가 악재에는 강하게, 호재에는 약하게 반응하면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상반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주요 글로벌 증시 중 수익률이 최하위권에 속한다. 플러스를 기록한 여타 주요 지수들과는 달리 연초보다 약 2% 하락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인 밈이 번지고 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낫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발구르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추세를 봤을 때, 국내 주식이 오르면 돈을 버는 것은 개미들보다는 외국인들이었다. 그러다 외국인 매도세가 늘어나면 쉽게 휘청거렸다.

코스피는 역사적인 폭락장을 기록했던 지난 8월 5일 '검은 월요일'의 여파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폭락장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8월 1일 코스피는 2777.68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지난 11일 기준으로는 2600선도 무너졌다. 이른바 '회복탄력성'이 미흡한 셈이다. 회복탄력성이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역경과 시련,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최근에는 모건스탠리의 '메모리 반도체 겨울설'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고전했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담은 보

고서를 잇따라 두 차례 발간했는데, 각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각 28%, 54%씩 낮췄다. 당시 해당 보고서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삼성전자는 2.02%, SK하이닉스는 6.14% 급락했다. 이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나서 'K-반도체' 기업의 견제함을 반박했지만 SK하이닉스만 페이스를 되찾고, 삼성전자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부진은 개미들의 기대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석 달 전이었던 7월까지만 해도 '10만전자'를 바라봤지만 '5만전자'로 다시 추락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부족한 회복탄력성은 부족한 논리에서 시작된다고 판단된다.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주가 부양 재료보다는 논리적인 흐름을 심어 주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5일 (음 9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외출할 때 계단 조심해야 한다. 48년생 욕심이 도를 지나쳐 남들을 불편하게 한다. 60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하는 하루. 72년생 물 흐르듯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84년생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다.



37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49년생 가장 큰 미덕은 허를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61년생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이지만. 73년생 반려 아기를 먹이만 주지 말고 때 되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85년생 승진의 운세.



38년생 자식이 도둑처럼 느껴져도 방법이 없다. 50년생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라. 62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분. 74년생 머리만 민고 있다는 일을 그르친다. 86년생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줘라.



3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1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 63년생 주변이 소란스러우니 말조심. 75년생 평소 생각한 것이 말이 되지 포용의 마음을. 87년생 산행하는 사람에게 산에 오르는 이유를 묻는다.



40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펄근감만 하루가 될 듯. 52년생 앞에 나서게 되니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64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76년생 날새처럼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88년생 실개천 구경 가자.



41년생 위기를 겪으며 확실한 상황을 알게 된다. 53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65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있다. 77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니 겸허히. 89년생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지만.



42년생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빙빙 도는 형국. 54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가져온다. 66년생 빌려주고도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78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온다. 90년생 12시부터 운전을 조심.



4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55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떼면 해될 일이다. 67년생 여행을 떠나는 좋은 일이 생긴다. 79년생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도움도 따르게 마련이다. 91년생 사는 것이 다 그런 거.



44년생 자식 말만 믿고 우물거에서 송충 찾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56년생 우물거에 침 뱉지 마라. 다시 찾게 된다. 68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80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먼저 손질해 놔야. 92년생 세월은 기다리지 않는다.



45년생 처음도 중요하나 끝맺음을 잘해야. 57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하라. 69년생 병이 오나 약도 주어지지 다행이다. 81년생 승진에 빠져서도 낙심은 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93년생 믿을 수 있는 자를 믿어야.



46년생 투자는 신중 잘보고 금방 달려들지 마라. 58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를 멀어지게 한다. 70년생 시작하는 일에 혼자보다는 합작으로 해보라. 82년생 파란 하늘이 보고 싶은 날인데 구름이 잔뜩 있으니. 94년생 사는 것은 오묘하다.



47년생 현상 유지가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59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71년생 좋은 것은 당분간 보류. 83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청소하여 환경을 바꾸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나가라. 95년생 오후에 약속 소식이 온다.



김상회의四季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아침 저녁으로 필자의 총정리 월광사 앞에 찾아드는 참새들을 보며 오는 아침에도 과자와 쌀을 던져 주면서 든 노랫말 생각이다. 오늘 온 참새가 어제는 그 애들일까. 그리운 이름, 김 산(金山) 아가는 필자가 아침마다 또는 어느 저녁때라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곡식 부스러기를 뿌려 줄라치면 짹짹거리는 참새들을 향해 뛰어오르며 짓곤 했다. 그럴 때마다 참새들을 후루룩 날아오르면서도 기가 막히게 쌀알 톨을 입에 물고는 날갯짓을 했고 제풀에 지친 필자의 아가 김 산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참새들을 쳐다보곤 하던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인연이었을까? 어떤 인연으로 그대들은 참새의 모습으로 하필이면 필자의 앞마당에 와 쌀톨을 받아먹는 것이며, 산이는 “왕, 왕”하며 짓어대다가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매일 매일 반복되는 양털 같은 인사를 나눴던 것일까?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참새들은 문 앞 난간 울타리에 찾아와 짹짹거리는데 산이가 예전처럼 푹푹 뛰어오르며 짓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아, 이별은 필자의 가슴 속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문득 붓다의 오도송이 생각난다. “그대들과나, 이생에서 저생으로 한량없는 세월, 윤회를 거듭하면서 집 짓는 자를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하여 계속 태어났니 이는 고통이었다. 아! 집을 짓는 자여, 이제 너를 보았노라.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갈애와 욕망은 파괴되었도다.” 이렇듯 존재의 실상은 태어나면 노병사하기 마련인 것이고 깨달아 열반에 들지 못하면 한량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밖에 없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3	7			6
4	3						8
		6	8		4		
1				3	5		
			2	9			
		8	5				7
		9		2	6		
5							3
7			6	1			9

1	9	3			6		7
							3
6			8		2		
9			5		3	4	
		6			9		
	4	2	3				5
		5	1				7
3							
6		9			5	3	8

6	7	8	9	1	9	8	2	1
2	8	1	8	6	2	7	9	9
9	2	9	7	2	8	6	1	8
2	6	2	1	9	9	8	7	8
1	8	8	6	7	2	1	9	9
7	9	9	8	2	8	2	6	1
8	9	7	2	8	1	9	2	6
8	2	2	9	9	6	1	8	7
9	1	6	2	8	7	9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2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3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